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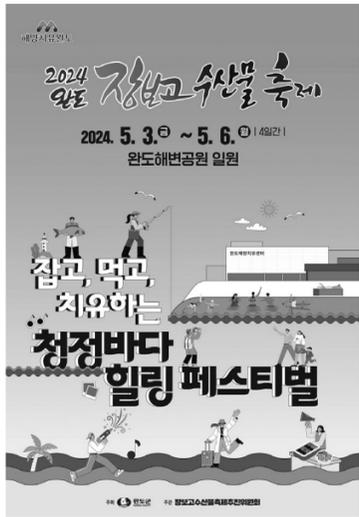
완도군, 수산물 소비 촉진 '장보고 축제' 연다

5월 3~6일 해변공원 일원서 '치유' 접목한 버스킹 등 다채

대표적인 바다 축제인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 3일 개막한다. 완도군은 전복 따기, 해양치유 체험, 특산물 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는 등 전북·해조류 등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장보고 대사의 업적 재조명 및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연계해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 행사 등은 지난 해보다 더 다채롭게 준비됐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문화예술 여행'과 '남도 전통 국악 한마당'이 진행되며

개막 행사로 가수 단딘과 양지은, 브브걸, 슬리피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4일에는 '전통 노젓기 대회', 5일에는 '어린이 어울린 한마당', '224m의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명품 수산물 경매쇼', '버스킹', '청해 트로트 가요제' 등이 진행된다.

6일에는 '장보고 국악대전'과 '치유 버스킹'에 이어 폐막 행사로 'Sea You 완도'가 마련된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따기 체험',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 체험 '키자니아 Go' 등이 있다.

이번 축제에는 '치유'를 접목해 '해양치유 버스킹'과 '해양치유 보물 찾기', '해양치유 챌린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해변공원 축제장에서는 해양치유 체험

홍보관 운영 및 각종 행사 중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복과 해조류, 광어 등 싱싱한 완도 수산물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청해진 미푸드 마켓'과 '청정완도 특산물 마켓'도 운영한다.

이밖에 '제68회 미스 전남 선발대회', 12개 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청해 트로트 가요제', 'K-POP 스트리트 란덤 플레이 댄스'와 '청소년 댄스 챌린지'도 열린다.

축제 주최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찾아 맛과 영양이 좋은 수산물을 먹고, 해양치유를 하며 일상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꾀해줄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속가능한 ESG 미래 교육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김강심)는 지난달 29일, 압해읍 문화센터에서 '탄소중립과 ESG'에 대한 교육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ISO ESG 심사원 류화실 강사와 함께했으며 군민의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지역민과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전략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기업들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이러한 ESG 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활기찬 논의가 이뤄졌다.

신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업과 ESG 경영 협력을 통해 지역민과 기업 모두가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5월 달달한 클래스 수강생 모집 강진군, 5개 프로그램 개설

강진군이 5월 달달한 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관내 공방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했고 5월에 5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개설 프로그램은 △커피북는남자(핸드드립) △요리노리 주간(크림노끼&리코타치즈샐러드) △요리노리 야간(우유식빵&샌드위치) △달롱작(쌀쿠키만들기) △필라테스 A·B이다. 인원은 각 프로그램별로 5명을 모집한다. 쿠킹 프로그램과 필라테스는 추가반을 개설했고 직장인들을 배려해 야간과 주말에도 반을 개설, 진행한다.

5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강진군 교육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5월 세 번째 주인 13일부터 18일에 해당 공방에서 운영된다.

5월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달달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필수 해시태그(#강진군평생교육, #달달한클래스, #공방이름)를 포함한 게시물을 본인 SNS에 업로드하고 네이버 달달한 클래스 밴드 게시판에 인증하면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주는 리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달달한 클래스 수강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고시·공고 또는 강진군 교육정보 홈페이지(평생학습-달달한클래스)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교육교류팀(061-430-3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진도군, 17일까지 접수

진도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일상 생활에서 군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오는 5월17일까지 3주간 제안서를 접수받고 개인, 단체, 지역 무관,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일상생활(일반 불편, 부담) △지역개발 △경제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 취업·일자리) △행정업무(각종 신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개 분야로 비규제, 단순 진정, 일반 민원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안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전자메일(wls5949@korea.kr)과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법무의뢰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우편은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유효하다.

진도=백재현 기자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신안군장학재단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오는 5월7일부터 5월2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안군 인재육성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분야는 3개 분야 8종이다.

선발은 △우수장학생 △내고장학교진학 △일반저소득 △만학도 △다문화가정 △낙도학생 △위기가정 △여가 및 저소득 장학생을 선발해 총 2억14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다. 다만, 대학생은 보호자의 주소 기준(6개월 이상)이 충족되면서 학생 본인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된다.

신안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장학금 신청 유형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누리집(분야별 정보) (재)신안군장학재단 공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이 3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7600톤을 수거 처리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청정바다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완도군이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7600톤을 수거·처리한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깨끗해요! 건강해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청정바다를 가꾸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해

양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방치 선박 정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조업 중 발생하는 폐부표나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무인도의 해양쓰레

기를 수거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를 연중 운영하여 해안가를 상시 청소한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해안가는 어장 정화선을 이용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오염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진도군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개최

진도군이 오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제10회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개의 고향, 진도개테마파크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반려견과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일에 있을 개막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반려견 시범과 마술쇼, 버튼식 축포 등의 개막 공연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명견 진도개의 우수성 불거리 제공을 위해 진도개와 사진 찍기의 행사가 열린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는 △

어질리티 체험 △미로찾기 △10m 달리기 △장기자랑 대회 등과 진도개 독(Dog) 스포츠가 진행된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반려견 인식표·열쇠고리 만들기 △진도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가족 공예품 만들기 등 16가지의 참여·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진도개 홍보관, 테마파크 쉼터, 어린이 놀이터, 미니 동물농장, 아리랑 식물원 등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진도개 페스티벌과 함께 전연기념물인 진도개의 품격을 높이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우수 진도개 콘테스

트'가 진도개테마파크 선발전회에서 열린다.

동물등록 완료된 진도개를 대상으로 총 20마리의 우수한 진도개를 선발해 성견 2마리와 미성견 2마리의 대상에게 각각 200만원의 상금 등 총 1920만원의 시상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061-540-6306, 6309, 6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소중한 반려견을 위해 군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진도개를 사랑하고 '가정의 달' 연휴 기간 진도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